

# 최형우 “통산 최다타점·KIA 상위권 진출이 올해 목표”

“광주 동계훈련량 많아 만족...합숙 안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워”

“양현중, 동생이지만 멋있어...후회없이 도전하고 돌아 오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통산 최다 타점'과 함께 '팀의 상위권 진출'을 목표로 2021 시즌 대비 동계훈련에 들어갔다.

3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올 시즌 목표를 밝혔다.

최형우는 “KIA와 인연을 다시 맺어서 좋고 가치를 인정해 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동계훈련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이어 “2011년과 2016년에 최우수 선수 후보에서 떨어진 후로 이루고 싶었던 것이 많았고 2017년 KIA 우승 후에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며 “야구를 하면서 목표 없이 뛰었던 처음이었다”고 돌아봤다.

“3년이 흘렀고 팀이 우승 이후 하락세를 겪었다”며 “중심 타자로서 역할을 못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점만큼 한국야구 통산 최다 타점을 목표로 달리고 싶다”며 “목표를 향해 뛰다 보면 팀도 상위권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KBO 통산 최다타점은 이승엽이 세운 1498타점이다. 최형우는 통산 1335타점으로 이 부문 4위에 이름이 올라갔다.

최형우는 “올시즌 우승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위권에 계속 있었으면 한다”며 “어린 친구들이 많아질 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참으로서 잡아주며 경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주변에서 나이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야구장에서는 선후배가 없고 경쟁해야 한다”며 “못하면 밀리는 건 당연하다”는 자세이기도 하다.

최형우는 광주에서 동계훈련을 하는 것에 만족을 표하면서도 합숙을

못하는 것은 아쉬워했다.

최형우는 “국내 동계훈련은 처음인데 단점은 크게 없지만 캠프는 합숙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해야 하는데 아침마다 개인 차로 이동해서인지 훈련을 한다는 느낌이 없어 조금은 아쉽다”면서도 “해외보다 광주에서 훈련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즐겁게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팀을 떠난 양현중에게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양현중이) 동생이지만 멋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팀에 남아주길 바라 요청도 했지만 현중이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도전해 보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성원했다.

최형우는 지난 시즌 두산과 LG에 약했다. “삼성에 있을 때도 한 팀에 많이 쪼였지만 우승한 기억도 있다”며 “한 팀에 지면 다른 팀을 이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타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KIA는 지난 시즌 두산에 3승13패, LG를 상대로 5승11패를 기록했다. 전체 성적 73승71패로 6위에 머물러

가을야구를 즐기지 못했다. 최형우는 “비시즌에 후배들과 운동하면서 체력을 많이 길렀다”며

“동계훈련을 잘 준비해 좋은 모습으로 경기에 나서겠다”고 각오다. 김민정기자

## ‘케이타 이탈’ KB손해보험, 10년만의 봄배구 적신회

허벅지 부상으로 3주 결장 ‘압도적’ 팀 공격력 책임져

가장 힘을 내야 할 시기에 가장 힘이 될 선수가 빠졌다. KB손해보험이 케이타의 이탈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KB손해보험은 3일 의정부체육관에서 대한항공에 세트 스코어 0-3(19-25 14-25 17-25) 완패를 당했다.

1위 대한항공을 맹추격하며 상위권 경쟁을 펼치던 2위 KB손해보험은 무거운 패배 속에 승점 47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항공(승점 53)과는 승점 6차로 더욱 멀어졌다.

케이타가 없는 KB손해보험은 앞선 라운드와 달랐다. 이날 경기 전까지 KB손해보험은 대한항공과 상대전적에서 2승2패로 맞섰다. 2패도 폴세트 접전을 펼치다 아쉽게 내준 경기였다. 대한항공과 앞선 4경기에서 승점을 한 번도 따내지 못한 적이 없던 KB손해보험은 5번째 만남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케이타의 이탈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시즌 KB손해보험의 ‘히트 상품’ 케이타는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 시즌 890득점으로 이 부문에서 압도적 1위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지난달 30



KB손해보험 케이타. (사진=KOVO 제공)

일 OK금융그룹전에서는 41점을 쏟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허벅지 부상으로 이날 코트에서 서지 못했다. KB손해보험은 확실한 공격 옵션이 사라지면서 대한항공의 블로커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대한항공은 블로킹에서 11-4로 KB손해보험을 압도했다. KB손해보험의 공격 성공률은 37.68%에 그쳤다.

케이타는 3주 정도 경기에 나설 수 없을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이 기간 한국전력(7일), 삼성화재(10일), 우리카드(17일)

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결장이 길어질 경우 OK금융그룹(21일)전 출장도 장담할 수 없다.

순위 다툼을 하는 한국전력, 우리카드, OK금융그룹과의 경기는 사실상 승점 6차리 경기다.

KB손해보험은 2010~2011시즌 준플레이오프 이후 한 번도 봄배구에 나선 적이 없다. 올해는 케이타를 앞세워 10년 만의 포스트시즌에 다가섰지만 중요한 순간 동력을 잃었다. 케이타가 없는 3주에 KB손해보험의 운명이 걸렸다.

## 토틀넘 무리뉴 감독 “케인, 다음 주엔 돌아올 것”

지난달 29일 리버풀전서 발목 부상...최고 호흡 선보였던 손흥민에게도 반가운 소식



발목 부상으로 이탈한 해리 케인(28·토틀넘)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올 전망이다.

조세 무리뉴 토틀넘 감독은 5일(한국시간) 첼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홈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

회견에서 “케인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그는 현재 만족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며 “케인이 다음주 복귀한다고 말하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케인은 지난달 29일 리버풀과 경기에서

서 상대 선수의 태클에 발목을 다쳤다. 당초 복귀까지 최대 6주가 예상됐다. 그러나 다행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곧 그라운드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5일 첼시전, 7일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전전까지는 어렵지만 11일 에버턴과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전이나 14일 맨체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때는 다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인의 복귀는 손흥민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케인과 최고의 호흡을 선보였던 손흥민은 케인의 공백 속에 잠잠하다.

무리뉴 감독은 “케인이 다쳤을 때는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쁜 마음이다. 다음주 에버튼,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 중 하나에는 케인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뉴스

## 필라델피아, FA 추신수에 관심...“벤치 보강 노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 만 팀을 찾지 못한 추신수(39)에게 관

현역 연장 의지 강하지만 새 팀 아직 못찾아

심을 보이는 팀이 있다. MLB 네트워크의 존 헤이먼은 4일(한국시간) “벤치 보강을 노리는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추신수, 마틴 곤잘레스, 브래드 밀러 등과 접촉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했다.

필라델피아는 이들 3명 외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신수는 현재 FA 신분이다. 지난해 텍사스 레인저스와 맺은 7년 1억 3000만 달러의 계약이 마무리됐다.

현역 연장 의지가 강한 추신수는 새 팀을 찾고 있지만, 스프링캠프 시작이 다가온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다.

필라델피아는 지명타자 제도가 없는 내셔널리그팀이다.

최근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수노조 반대로 무산되는 분위기다.

텍사스에서 지명타자로 자주 출전했던 추신수가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는다면 백업 외야수 겸 왼손 대타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추신수는 2005년 빅리그에 데뷔해 16시즌 동안 통산 1652경기 타율 0.275, 218홈런 782타점 157도루의 성적을 냈다. 지난 시즌에는 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6, 5홈런 15타점 6도루를 기록했다.

뉴스

##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1년 연기 최종 확정...2023년에 만나요



KOREA”)였으나, 대회가 2023년으로 연기되면서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APMG 2022 JEONBUK KOREA)로 변경됐다.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1년 연기가 최종 확정됐다.

4일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지속됨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이사회를 통해 대회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전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최 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대회 공식명칭도 바뀐다.

당초 대회 공식명칭은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APMG 2022 JEONBUK

조직위는 대회 명칭과 실제 개최 연도가 다를 경우, 일반인은 물론 참가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회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아직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대회가 1년 연기되고 대회 공식명칭도 바뀐 만큼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세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주최로 열리는 전 세계 생활체육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70개국에서 2만8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김시래↔이관희’ LG·삼성 2대2 트레이드 최종 합의

프로농구 창원 LG와 서울 삼성이 간판 선수 김시래(32)와 이관희(33)를 주고받는 트레이드에 최종 합의했다.

LG와 삼성은 4일 2대2 트레이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LG에서 뛰던 김시래와 테리코 화이트(31)가 삼성 유니폼을 입고, 삼성 소속이던 이관희와 케네디 믹스(26)가 LG로 간다.

해당 트레이드 사실은 지난 3일 알려졌으며 양 팀은 이날 공식 발표했다. 김시래와 이관희가 이번 트레이드의 중심이다.

리그 정상급 포인트가드로 꼽히는 김시래는 2020~2021시즌 35경기에서 평균 12.1득점 5.7어시스트 2.2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프로 첫 시즌인 2012~2013시즌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뛰던 김시래는 2013~2014시즌부터 LG에서 뛰었고, 이후 LG의 간판 스타로 활약했다.

이관희는 2011~2012시즌 삼성에서 프로에 데뷔한 후 한 팀에서만 뛰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잡았다.

올 시즌에는 36경기에서 평균 11득점 3.5리바운드 2.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16승 20패로 공동 7위에 있는 삼성은 6위 인천 전자랜드(18승18패)와 2경기 차이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불씨가 살아 있다.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한 삼성과 LG는 공교롭게도 6일 창원체육관에서 곧바로 맞대결을 펼친다.